

고병일 광주은행장 연임...“지역민 실질적 지원 강화”

JB금융 추천위, 단독 추천·선임 지역 밀착 상생경영 성과 인정 시금고 수성·미래성장동력 확보 “질적 성장 통해 리딩뱅크 도약”

“지역향토은행으로서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고병일 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JB금융지주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고병일 현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선임됐다. 임기는 1년이다.

지난 2023년 1월 자행 출신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한 고 은행장은 2년 동안 지역밀착 상생경영에 매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주



고병일 광주은행장.

광주은행 제9

시 1급고 수성, 지역밀착 상생경영 실천,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민과 직원들로부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고 은행장은 취임 후 지역과 동반성장을 꿈꾸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서민의 고

통을 분담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에 큰 힘을 쏟았으며,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과 293억원의 민생금융지원을 발 빠르게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동반자 역할에 충실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금융지원과 사회공헌활동 등의 꾸준한 정성과 노력들은 다수의 공신력 있는 제도를 통해서도 증

명됐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 선정과 더불어 지난 8월에는 지역 예금을 받는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지역 밀착 경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 글로벌 매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Forbes)’와 ‘CNBC’에서 각각 ‘2024년 세계 최고의 은행’과 ‘2024 아태 지역 최고의 은행’을 선정한 가운데, 광주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4 World’s Best Banks’ 국내 3위를 달성했다. 특히 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모두 제치고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내외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고 은행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금융서비스

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토스뱅크와의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권 최초 공동대출 서비스인 ‘함께대출’을 출시했고, 출시 100일째인 지난 4일에는 3200억원을 넘어서면서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고 은행장은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며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힘든 시기가 예상되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리딩뱅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1966년 광주 출생으로 금고고,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임방울대리지점장, 백운동지점장,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영업1본부 부행장, 경영기획본부(CFO) 겸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을 거쳐 지난해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 롯데백, 크리스마스 포토이벤트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는 지난 16일 1층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공간에서 핀란드 공식 인증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포토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문화센터 수강 고객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핀란드 북부에 위치한 로비니에미 마을의 공식 인증 산타와 함께하는 포토이벤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드는 크리스마스 바람뿔, 초콜릿 케이크, 쿠키하우스 및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강좌도 준비돼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상의-하나은행, 사랑의열매 후원

2천만원 상당 동절기 이불 전달

광주상공회의소는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광주 사랑의열매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김홍균 부회장, 김용구 감사, 채화석 상근 부회장, 광주상의 수석부회장이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인 박철홍 회장, 양동원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 물품은 2000만원 상당의 동절기 이불 300세트이며, 광주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돼 겨울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데 쓰일 예정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시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증가·산부인과 감소

통계청, 보건·의료서비스 변화 10년새 요양병원 95개→143개 의원·치과 등 늘어...조산원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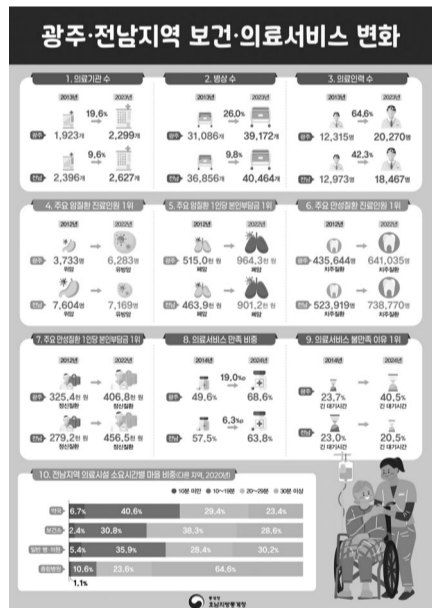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은 10년 전 대비 요양병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늘었으나 조산원은 모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호남·제주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에 따르면 2013~2023년 대비 요양병원 수는 광주는 36개→63개(75.0%)로 증가했고, 전남은 59개→80개(35.6%)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요양병원 수는 1232개→1393개로 160개(13.0%)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수는 급속한 고령화 여파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조산원 수는 1개, 4개였으나 모두 ‘0’개로 감소율 100%를 기록했다.

의료기관 종류 중에선 광주는 의원(864→1054개)이, 전남은 치과 병·의원



(419→519개)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 기간 병원·요양병원·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등을 총망라한 전체 의료기관 수는 전국은 29.2% 늘어났으나 광주는 19.6%, 전남은 9.6%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에는 못미쳤다.

표시 과목별 의원 중 산부인과 수는 광주 45→36개(-20%), 전남 24→19개(-20.8%)로 모두 감소했다.

병상 수는 10년 전 대비 광주(20.6%), 전남(9.8%) 모두 늘었고 이중 광주는 전국 평균(12.8%)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환자실은 광주는 386→405개(4.9%)로 늘었으나 전남은 456→392개로 64개(-14.0%) 감소했다.

10년 전 대비 의료인력 수는 광주(64.6%), 전남(42.3%) 모두 늘었으며 간호사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12~2022년 기준 주요 암질환 진료 인원은 유방암, 위암, 대장암 순으로 높았다. 이 중 유방암 진료 인원은 광주(104.4%), 남(112.2%) 모두 100%를 웃돌 만큼 가장 많이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만성질환 진료 인원은 모두 치주질환, 전염병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남지역 관절염 진료 인원(-1.3%)은 소폭 감소했다.

2024년 기준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항목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광주는 68.6%, 전남은 63.8%로 나타났으며 10년 전 대비 광주 19.0%포인트(p), 전남 6.3%p 각각 증가했다.

나다운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김치타운에 6500만원 후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7일 광주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지역사회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합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합동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에서는 문재용 기아 광주공장장과 은용철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이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회 사무처장에게 총 6500만원의 김장 비용을

후원했다.

문재용 기아 광주공장장과 은용철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과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김장 봉사에 나섰다.

후원금을 통해 담가진 김치는 광주지역 내 기초푸드뱅크 6개소, 5개구가족센터,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자매결연시설 9개소 등 총 20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

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기업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2일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담 제막식’에 참여해 2억2900만원을 기부하고 10일에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재)룩수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소영 기자